



▲ 유티리티/철강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재생에너지

RePower EU: 러시아에 보내는 이별 편지

- ✓ EU는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RePower EU'를 발표
- ✓ 단기적으로 LNG 확대 등 추진.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및 에너지 효율화 강화
- ✓ EU, 2030년까지 매년 2021년 대비 2~3배에 달하는 태양광, 풍력 발전 설치 필요
- ✓ 특히 주택용 태양광 인허가 단축, 신규 건물 지붕형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주목
- ✓ 정책 모멘텀은 확실. 공급망 차질 완화 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 확대 필요

Overweight

단기적으로 LNG, 중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통해 러시아와 이별하는 EU

EU는 러시아산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RePower EU'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2,100억 유로의 투자를 통해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0'으로 낮출 수 있다. 우선 LNG 확대 등 단기적 조치를 통해 감축할 수 있는 100bcm을 감축하고(vs 2021년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 155bcm), 이후 2027년까지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67bcm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Fit for 55'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수소 목표 다시 상향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갈구가 EU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강화시키고 있다. 'Fit for 55'를 통해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2030년 40%(vs 2019년 20%)를 제시한 바 있으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금번 RePower EU를 통해 이를 45%로 상향했다(발전 비중 기준 69%). 2030년 기준 태양광, 풍력 발전용량 목표는 +11.6%, +8.7% 상향했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EU는 매년 약 48GW의 태양광, 36GW의 풍력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2021년 태양광 설치량 23GW, 풍력은 11GW). 수소 관련 목표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정유/화학 등 산업 내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2030년 EU 수소 수요 전망을 2,000만톤으로 약 3배 상향했다.

공급망 문제에 가려진 정책 모멘텀, 빛을 볼 때가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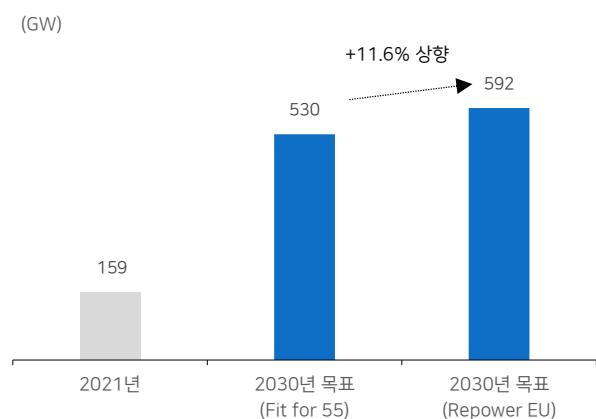
단기적으로 공급망 차질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설치량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병목현상이 완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정책적 유인이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U는 단순히 목표 상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까지 제시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에 대한 정책이 강력한데, 1)인허가 기간이 최대 3개월로 단축되며, 2)신규 공공, 상업용 빌딩은 2026년부터, 주택은 2029년부터 지붕형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 태양광 설치 기간이 타 재생에너지 대비 짧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러시아 가스에 대한 효과적 대책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풍력 발전 인허가 단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시 제시되었다. 공급망 차질 완화 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림1 2030년 가스 수요 감축량 목표: 기존 116bcm에서 LNG 확대, 에너지 효율화 등 통해 310bcm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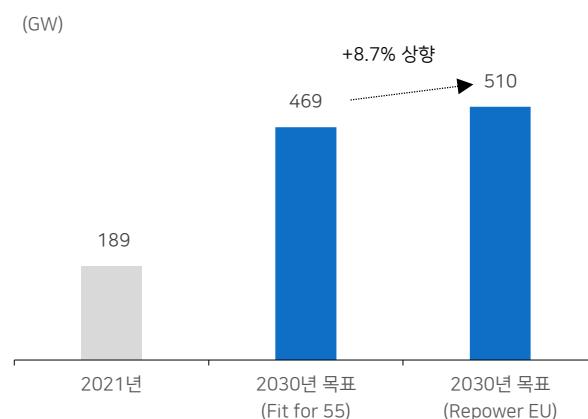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EU 태양광 발전용량 목표: 1년 전 대비 +12%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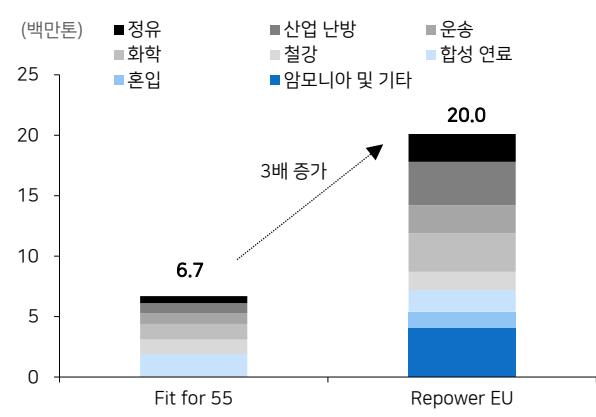
자료: 유럽의회, BNEF,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EU 풍력 발전용량 목표: 1년 전 대비 +12%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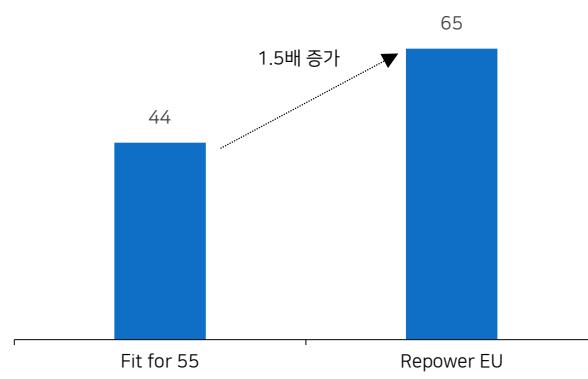
자료: 유럽의회, WindEurop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EU 2030년 수소 수요 전망: 1년 전 대비 3배 상향



자료: 유럽의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EU 2030년 수전해 용량 목표: 1년 전 대비 1.5배 증가



자료: 유럽의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RePower EU 주요 내용 발췌

구분	내용
에너지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 효율화 캠페인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 타겟 9%에서 13%로 상향(vs Fit for 55) ▪ 원유와 가스 수요 5% 감축 효과 예상(원유 16mtoe, 가스 13bcm) ▪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설치 시 VAT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공급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Energy Platform 신설하여 LNG 수입 인프라 공유, 가스 공동 구매
재생에너지 설치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0%에서 45%로 상향(vs Fit for 55). ▪ 재생에너지 설치용량 목표를 2030년 1,067GW에서 1,236GW로 상향 ▪ 태양광 용량 2025년까지 320GW로 확대(2020년말 기준 136GW). 2030년까지 600GW를 추가로 설치. 연간 45GW 이상 설치 필요 ▪ 지붕 태양광의 설치 인허가 과정을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대형 지붕형 태양광 포함) ▪ 지붕형 태양광 설치 의무화: 250제곱미터 이상의 신규 공공, 상업용 빌딩은 2026년부터(기준 빌딩은 2027년까지). 신규 주택은 2029년부터 ▪ 히트 펌프 설치율 2배로 확대. 5년 이후 누적 1,000만 대 설치 계획 ▪ 재생에너지 설치 인허가 가속화하기 위한 Go-to Area 지정 등 가이드라인 마련
수소 및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17.5GW의 수전해 생산 CAPA 마련. 2030년까지 1,000만톤의 청정(Renewable) 수소 생산(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80GW 추가 필요)+ 1,000만톤의 청정 수소 추가 수입 ▪ 그린 수소 확대를 뒷받침 하기 위해 CCfD(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제도 시행 계획 ▪ 추후 2개의 위임법률을 토해 '청정 수소'에 대한 정의를 내릴 계획 ▪ 2030년까지 바이오메탄 생산량 35bcm으로 확대

자료: 유럽의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